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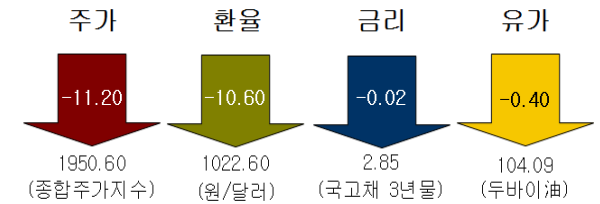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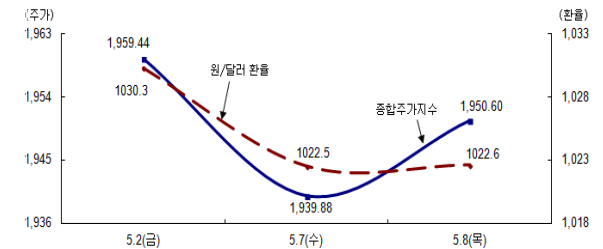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 2050, 통일 한국의 경제적 미래

1. 통일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 추정
2. 성장회계로 본 산업의 구조적 변화
3.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4. 최근 북한 경제정책 특징과 통일에의 시사점

週間 主要 經濟 指標 (5.2~5.8)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성 : 장 우 석 연구위원 외(2072-6237, jangws@hr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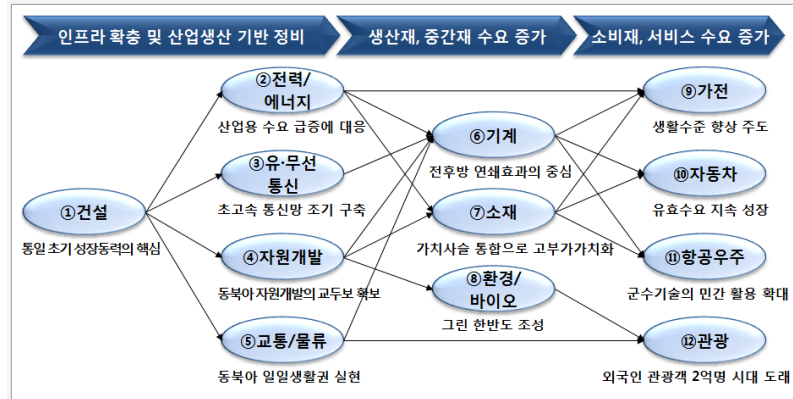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통일 이후 우리나라는 ①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바뀌고, ②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을 확보하며, ③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변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④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순식간에 ‘세계의 공장’으로 재도약할 수 있으며, ⑤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가 연장되고, ⑥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한편, ⑦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전망이다.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면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생산재, 중간재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면서 **소비재 및 서비스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① **건설 -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통일 초기 성장 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② **전력/에너지 -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발전 설비 확충으로 북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유·무선통신 -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으로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될 전망이다.

④ **자원개발 -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⑤ **교통/물류 -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유럽철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 지키는 물류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⑥ **기계 - 전후방 연쇄효과의 중심**: 통일 이후 전 산업에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산업은 고성장기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⑦ **소재 -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소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⑧ **환경/바이오 - 그린 한반도 조성**: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⑨ **가전 - 생활수준 향상 주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남부한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으로 경쟁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⑩ **자동차 - 유효수요 지속 성장**: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 산업은 내수시장 및 중국 동북3성 수출시장을 발판으로 성장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⑪ **항공우주 -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⑫ **관광 - 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 시장 확대로 인근 국가와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로 급격히 확대되어, 2050년 외래 관광객 수는 최대 2억명, 관광산업 규모는 최대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 시사점

첫째, 남과 북의 민·관 모두가 통일과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진지한 대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대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 및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셋째**,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1. 통일에 따른 경제활동 기반의 변화

○ 통일은 국가 경제활동의 기반을 질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창출

① 사실상의 섬나라에서 대륙경제 국가로 변신

- 육로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사실상의 섬나라 처지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육상 교역이 가능한 대륙 경제 국가로 변신
- 생산 및 소비의 기반이 되는 물리적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산업의 과밀화 문제가 해소되고 성장의 여유를 확보하여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을 주도

②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내수시장 확보

- 국내 인구가 단숨에 8,000만명에 근접하면서 노동시장과 내수시장에서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한 인구 강국으로 부상
- 나아가 인접해 있는 동북 3성, 1억 1,000만 인구를 포괄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으로 제2의 고속성장 달성이 가능

③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 토지, 지하자원, 산림, 해양, 수자원 등 다양한 국가 자원의 증가로 경제성장의 토대가 강화
- 특히 첨단 산업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하락하고 자원 자주개발률이 향상되어 국가적 차원의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

④ 첨단 기술과 고효율 노동력의 결합으로 '세계의 공장'으로 도약

-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등 남북한의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어 본격적인 시너지가 창출
- 선진 기술과 저렴하고 질 좋은 노동력의 결합으로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동남아와 중국을 제치고 세계의 공장 지위를 확보

⑤ 산업수명주기(Industry life cycle) 연장

-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쇠퇴기에 접어든 산업들이 수명주기를 거슬러 올라가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하게 됨
-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이 빠르게 회복되어 해외로 빠져나간 제조업 기업들의 유턴 현상이 확산

⑥ 중간 단계를 뛰어넘는 도약(Quantum Leap)적 성장

- 개발도상국의 일반적 성장경로가 아니라 단숨에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특별한 성장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
- 국가 주도로 질서 있는 계획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자본의 축적 과정이 생략된 채 대규모 자본이 즉시 투입 가능하여 예산 제약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고속 성장기에 진입
- 전 산업분야에서 중간 단계를 뛰어넘어 21세기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적 도약이 가능하여 단숨에 고효율 친환경 산업구조를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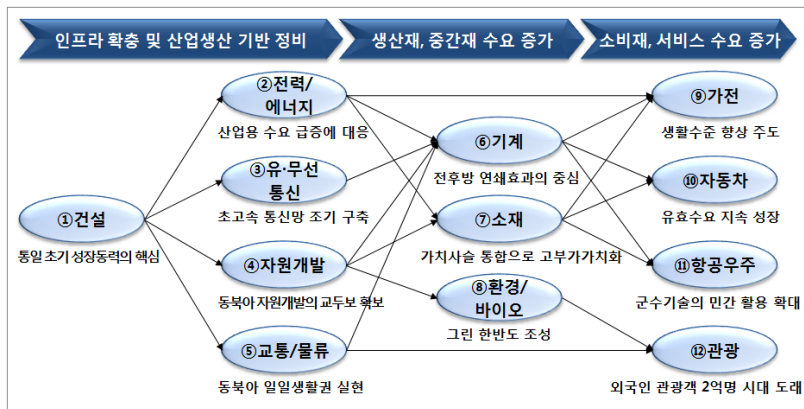
⑦ 국방예산 절감 및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촉진

- 과도한 국방비 지출 부담이 해소됨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 투자역력이 확대되고 비군사적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이 증가
- 군수분야에서 축적된 연구개발 성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첨단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

2.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 통일 이후 국내 경제는 인프라 확충, 산업생산 기반 정비, 생산재 수요 증가, 소비재 및 서비스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다양한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제공
- (인프라 확충 및 산업생산 기반 정비) 정부 주도의 계획개발 초기 단계는 생산 기반시설 확충, 도시 및 산업단지 정비를 통해 본격적인 경제성장의 기틀을 다지는 시기로 인프라 관련 산업이 빠르게 발전
 - (건설) 교통, 통신, 전력 등 SOC가 확충되고 도시화 및 산업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건설업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전망
 - (전력/에너지) 에너지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발전 및 송배전 설비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설비 구축이 빠르게 진행
 - (유·무선 통신)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단기간 내 가능
 - (자원개발)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가능
 - (교통/물류) 도로 정비와 함께 철도 현대화 및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동북지방과도 1일 생활권으로 연결

< 통일 이후의 산업발전 경로 및 12대 유망 산업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생산재 수요 증가) 인프라 및 에너지 문제가 해결된 이후 남한의 민간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되며 본격적인 시너지가 발생
 - (기계) 건설기계, 발전설비 등 전방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가전 등 후방산업 성장과 함께 '산업의 어머니'인 기계 산업이 빠르게 발전
 - (소재) 철강, 희소금속, 희토류 등 광물자원에 자본과 기술력이 더해지면서 '산업의 쌀'인 소재 산업이 양적, 질적으로 발전
 - (환경/바이오) 친환경 청정기술을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업·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소비재, 서비스 수요 증가) 고용 증가 및 소득 수준 향상으로 잠재수요가 유효수요로 전환되어 내수 소비시장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
 - (가전) 소득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전제품 등 내구 소비재의 생산 및 판매가 빠르게 증가
 - (자동차) 북한 지역 내 자동차 보급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동북3성을 타겟으로 하는 생산기지 구축도 가능
 - (항공우주)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
 - (관광) 통일 후 북한뿐만 아니라 남북한,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 시장 확대에 일본을 비롯하여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도 급격히 확대
-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권 동반 성장, 서비스업 발전으로 이어지며 12대 유망 산업을 넘어 전 산업으로 성장의 기회가 확산
 - 한반도 북부지역의 빠른 경제 성장은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경제권의 동반 성장을 주도하며 한반도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지로 변화
 -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및 소득수준 향상, 국제화 진전에 따라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전문 서비스 등의 서비스업이 빠르게 발전

3. 통일 한국의 12대 유망 산업

① 건설 :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

○ (현황) 남한은 고속성장을 지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건설업의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으며, 북한은 만성화된 경제침체로 건설업 성장이 제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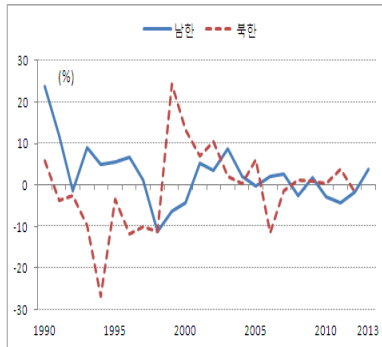
- 남북한 건설업은 성장세가 약화되며 최근 침체를 나타내고 있음

- 남한의 건설업은 금융위기 이후 크게 침체되며 2010년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다가 2013년 플러스로 전환되며 소폭 회복
- 북한의 건설업은 2000~2005년까지 연평균 13%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성장세가 약화되며 침체되어 있음
- 북한의 건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9.8%까지 상승했다가 2012년 7.9%로 하락함.

-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북한보다 22배 크지만 성장이 한계 수준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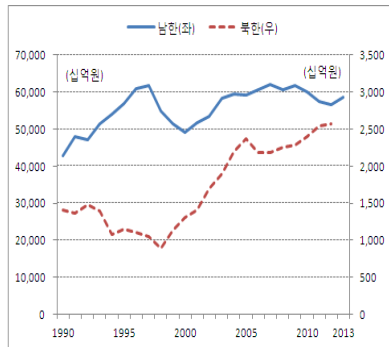
- 남한의 건설업 규모는 2012년 기준 56조 5,577억 원으로 북한 2조 5,794억 원보다 22배 크게 나타남
- 2012년 북한의 SOC·건설 부문이 전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3%이고 남한은 7.9%를 나타냄

< 남북한 건설업 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실질기준.

< 남북한 건설업 생산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부가가치기준, 실질기준.

○ (전망)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을 중심으로 경제 재건이 이루어짐에 따라 건설업은 통일 초기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부상할 전망

- 경제특구 및 산업단지 구축, 교통·전력·에너지 인프라 구축, 주택 건설 사업은 침체기에 빠져 있는 남북한 건설업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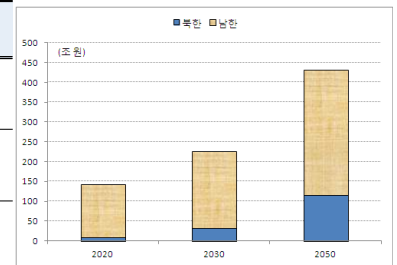
- 독일 통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도로, 철도, 수로, 주택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사업이 본격화되고, 건설업 관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며 이는 소득 증대로 이어질 것임)
- 통일 초기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질 대규모 SOC·건설투자는 통일 초기 북한 지역의 경제성장을 이끌 뿐만 아니라 타 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건설업은 203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계획개발 단계(2015~2020) 및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10.2%, 12.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후 안정성장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한 지역의 건설업 성장률은 4.6% 수준으로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 건설업 실질부가가치 규모 전망 >
(단위: %)

	2015~2020년	2021~2030년	2031~2050년
통일 한국	2.5	3.5	2.3
남한	2.3	3.0	1.5
북한	10.2	12.0	4.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2010년 가격 기준.

1) 구동독 지역의 주택 및 비주택 등 건물의 건축허가 건수의 증감을 추이를 보면 통일 직후인 1992년에 전년 대비 383.7%, 1993년에 211.1% 증가하였고, 건축허가 건수도 1991년 5,484건에서 1996년에 18만 6,155건으로 급증하고 이에 따라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통일 이전에는 높았으나 통일 이후에는 1995년에는 건설에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 경제 및 건설시장에 관한 기초 연구', 2012).

② 전력/에너지: 산업용 수요 급증에 대응

○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발전설비 및 발전량이 남한보다 앞서 있었지만 이후 화력과 원자력발전을 크게 늘린 남한에 추월당함

- 남한이 1980년대 이후 화력과 원자력 발전설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였으며, 2012년 현재 북한의 발전설비 규모는 남한의 1/11 수준

- 남한이 화력발전 설비를 1965년 55만kW에서 2012년 5,231만kW로 94배 늘릴 동안 북한은 28만kW에서 296만kW로 10.5배 증설하는 데 그침
- 또한 남한은 2,072만kW 규모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확보했지만 북한은 상용 원전을 확보하는 데 실패
- 이에 따라 남한의 발전설비는 1965년 77만kW에서 2012년 8,181만kW로 증가한 데 비해 북한의 발전설비는 같은 기간 239만kW에서 722만kW로 증가

- 북한의 발전설비는 노후화 및 부품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효율성이 하락하여 실제 발전량은 남한의 1/25 수준으로 추정

- 북한의 발전량은 1970년 140억kWh로 남한(92억kWh)의 1.5배 이상이었지만 2012년에는 215억 kWh로 남한(5,096억kWh)의 4.2%수준
- 2012년 북한의 발전설비 규모가 남한의 8.8% 수준인데 비해 전력생산량이 4.2%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은 설비운영에서 커다란 차질이 발생했음을 시사

< 남북한 발전설비 규모 비교 >

(단위: 천 kW)

	남한					북한			
	수력	화력	원자력	기타	합계	수력	화력	원자력	합계
1965	215	554	-	-	769	2,105	280	-	2,385
1970	329	2,179	-	-	2,508	2,550	1,000	-	3,550
1975	621	4,099	-	-	4,720	2,730	1,800	-	4,530
1980	1,157	7,647	587	-	9,391	2,910	2,100	-	5,010
1990	2,340	11,065	7,616	-	21,021	4,292	2,850	-	7,142
2000	3,149	31,586	13,716	-	48,451	4,592	2,960	-	7,552
2010	5,525	52,837	17,716	-	76,078	3,958	3,010	-	6,968
2012	6,446	52,306	20,716	2,338	81,806	4,260	2,960	-	7,220

자료: (남)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 (북)통계청.

○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여 발전설비 확충이 이루어짐에 따라 북한 지역의 전력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

-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환경문제 우려가 높은 수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보다 최신 청정기술을 적용한 친환경적 화력발전 설비 구축이 유리

- 수력발전은 추가적인 댐 건설보다 기존 발전소의 설비 개선 및 부분적 확충에 주력하는 것이 경제적이며 원전 건설은 환경, 안보 측면의 우려가 존재
-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석탄 자원을 활용한 화력발전을 위주로 전력설비 확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 단기적으로 발전 및 송배전 설비 개보수를 통해 효율성이 개선되지만 해도 전력량은 50%이상 증가

- 북한 화력발전 설비의 효율성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발전량은 5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2050년까지 북한 지역의 발전설비는 2012년 대비 8배, 발전량은 17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남한이 화력발전설비를 가장 많이 늘린 1990~2000년 기간의 증가율인 300% 수준으로 북한의 화력발전설비가 2021년에서 2030년까지 증가한다고 가정
- 고속성장 단계(2021~2030)에 북한의 발전설비는 1,314만kW, 발전량은 716억 kWh 수준에 도달
- 2050년에는 발전설비 5,848만kW, 발전량 3,637억kWh로 2015년 대비 각각 8배와 11배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통일한국의 전력량과 발전설비 추정 >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발전설비(천 kw)	발전량(억 kWh)
남한	97,600	6,100	121,920	7,620	130,560	8,160
북한	7,220	328	13,140	716	58,482	3,637
전체	104,820	6,428	135,060	8,336	189,042	11,797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남측 전망은 2014년 1월에 발표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의거).

③ 유·무선통신: 초고속 통신망 조기 구축

- (현황) 남한은 높은 수준의 유·무선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북한은 2008년 이후 이동전화의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짐
- 남한의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는 2013년 5월 기준으로 5,400만명을 넘어 서며 포화상태에 직면
 -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누적 가입자 수 증가율은 연평균 3.4%로 나타남
- 북한은 2008년 이집트 기업 오라스콤이 이동통신 사업권을 따낸 이후 이동전화 가입자 수가 빠르게 증가
 - 오라스콤은 전체 지분의 75%, 북한 체신성이 전체 지분의 25%를 투자하여 고려링크를 설립하고 2008년부터 이동통신 사업을 시작
 - 이에 따라 북한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8년 1,694명에서 2013년 약 200만 명으로 5년 만에 1,000배 이상 증가
- 한편, 유선전화의 경우 2011년 기준 남한의 가입자 수는 2,846만명, 북한의 가입자 수는 회선 기준으로 113만 회선으로 남한의 4.1% 수준
 - 북한의 유선전화 가입자 수는 2000년 50만 회선에서 2010년 118만 회선으로 증가한 후 성장이 정체

< 남북한 이동전화 누적가입자 수 비교 >

(단위: 명)

	남한	북한
2008	45,606,000	1,694
2009	47,944,000	91,704
2010	50,767,000	431,919
2011	52,507,000	900,000
2012	53,625,000	1,500,000
2013	54,009,000	2,000,000

자료: (남) e-나라지표, (북) 오라스콤社 실적보고서(2008-2013).
 주: 2013년은 5월 기준.

○ (전망) 정보통신 강국인 남한과 후발주자인 북한의 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초고속 통신망이 단기간 내에 구축

- 유선을 거치지 않고 바로 무선으로 통신 인프라가 점프
 - 북한은 경제적인 후발주자로서 최첨단 기술에 의거한 통신수단의 도입에 유리
 - 한국의 세계최고 경쟁력의 무선통신 인프라가 이식될 경우 짧은 기간에 전 주민에 무선전화 보급
- 북한 지역의 주민들은 통일 후 6~7년 내에 전 주민의 휴대전화 소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현재 북한과 비슷한 소득수준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2000년대 들어와 폭발적인 무선전화가입자 수 증가를 경험
 - ※ 북한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코트디부아르, 케냐, 세네갈, 탄자니아, 잠비아의 100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000년부터 2012년 까지 각각 31.1배, 173.5배, 32.9배, 178배, 76.3배 증가
-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의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고속성장 단계, 안정성장 단계에 진입하면서 점차 하향 안정화
 - 북한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에 12.5%, 고속성장 단계에 8.3%, 안정성장 단계에 7.2%로 점차 하향 안정화될 전망
 - 이에 따라 통일 한국의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은 계획개발 단계 3.8%에서 고속성장 단계 3.4%, 안정성장 단계 2.9%를 기록할 전망

< 통일 이후 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성장률 전망 >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3.8%	3.4%	2.9%
남한	3.4%	3.0%	2.8%
북한	12.5%	8.3%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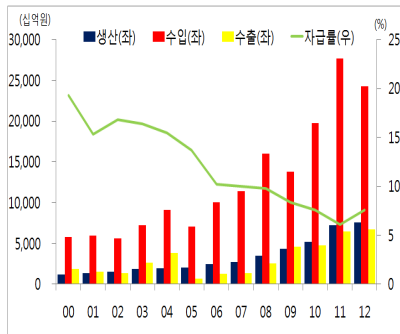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④ 자원개발: 동북아 자원개발의 교두보 확보

○ (현황) 북한은 국토의 약 80%에 광물자원이 광범위하게 분포(유용광물 200여종)되어 있으며, 남한은 광물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음

- 북한 자원 개발 : 매장량 기준 북한 광물자원의 세계 순위는 마그네사이트 3위, 흑연 4위, 금 6위, 아연 7위이나,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개발 정체
 - (개발 유망 광종) 북한 매장량이 풍부하고, 국내 자급도가 낮으며 개발 경제성이 기대되는 광종으로는 금, 아연, 철, 동,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인상흑연, 인회석, 무연탄 등이 있음²⁾
 - (생산 정체) 북한 신규 광산의 개발 부진, 채굴의 심부화, 장비의 노후화, 전력 부족 등으로 1990년대 이후 생산량이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이후 정체
- 남한의 높은 수입의존도 : 2012년 남한의 광산물 자급률은 7.6%로 대외의존도가 높아 해외 자원시장의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남한의 광산물 수입은 2000년 이후 수입이 늘어나면서 자급률이 급속도로 낮아지고 있음

< 남한의 광물 수입 동향 >



자료 : 지식경제부·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 : 경상가격 기준.

<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량 추이 >

(단위: 톤)

	1990	2000	2007
금	5	2	2
은	50	40	20
동	15,000	13,000	12,000
철광석	8,430,000	3,793,000	5,130,000
텅스텐	1,000	500	600
마그네사이트	1,500,000	1,000,000	1,000,000
흑연	35,000	30,000	30,000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2) 방경진, “북한 광물자원 현황 및 개발 실태”, 『북한 광물자원산업의 진출 전략과 전망 포럼』, 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 (전망) 한반도 북동부 지역에 채광, 야금, 에너지 관련 복합단지를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 안정적 공급 기반 구축 : 남한의 광물자원이 거의 고갈된 상태에서 북한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초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비축기지 역할 가능
 - 국제 광물 가격 상승 등 공급 불안에도 광물 도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남한의 수입대체효과 :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 시 연간 약 124억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
 - 특히, 산업의 기초 원자재인 철의 경우 내수 규모는 231.6억 달러에 달하지만, 자급률이 1%에 불과한데, 북한의 철 보유 규모는 8,775억 달러에 달해 내수의 50%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15.8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 기대³⁾
- 첨단산업 등 관련 산업 동반 성장 : 북한은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희유금속의 개발·가공과 연계한 산업 성장도 기대
 - 광산 개발 사업 추진시 장비산업, 토목건설 및 운송산업 등의 동반 성장 효과도 기대
- 자원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 한반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광물자원 개발 및 가공산업을 추진하고, 항만, 발전소 등 인프라 개발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 몽골 자원 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

< 남북한 주요 광물자원 비교 및 가용 연한 >

구분	남한			북한	남한 수요분의 50% 북한 조달 시 가용 연한
	보유규모 (억 달러)	내수규모 (억 달러)	자급률 (%)	보유규모 (억 달러)	
금	18	14.1	4	857	122년
철	7	231.6	1	8,775	76년
마그네사이트	-	0.8	0	24,048	60,120년
인상흑연	2	0.2	0	30	300년
인회석	-	1.5	0	270	360년
합계	27	248.2		33,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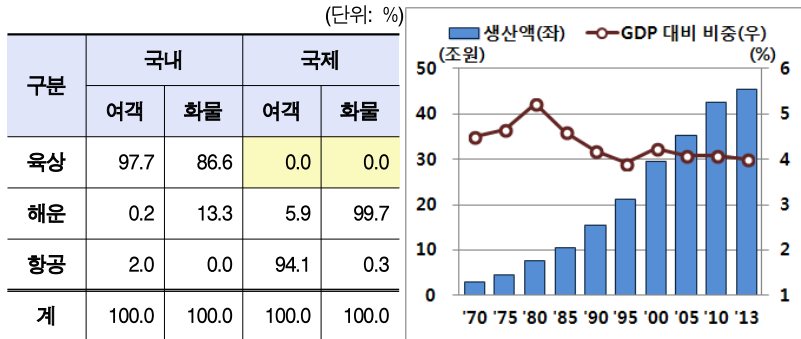
자료 :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료 활용, 현대경제연구원 추산.
주 : 보유 규모 및 내수 규모는 2011년 수입단가 기준.

3) 북한 철광석의 품질이 다소 낮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철광석 국제가격의 폭등 등 가격불안정성을 고려할 때 안정적 공급 기반 마련은 큰 의미가 있음.

⑤ 交通/물류: 동북아 일일생활권 실현

- (현황)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인해 육상물류가 완전히 봉쇄됨에 따라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본격 물류국가로의 발전이 가로막혀 있음
- 남한의 육상물류는 국내 여객 수송의 97.7%, 국내 화물 운송의 86.6%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제 육상물류는 전무한 실정
 - 특히, 제1의 교역 상대국이자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중국과의 육상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남한의 물류산업은 70~80년대의 고성장기를 지난 이후 뚜렷한 성장 모멘텀을 찾지 못한 채 하락세가 지속
 - 이에 따라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수준까지 하락
- 북한은 주철종도(主鐵從道)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對중국 교역은 단등을 통한 교역이 70%를 차지해 육상 물류가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
 - 북한은 전력이 풍부하던 시절에 철도의 전철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남한에 비해 높은 전철화율을 조기에 달성
 - 북한의 철도는 수송분담률(86%), 총연장(5,299km), 전철화율(80%)이 모두 남한보다 높지만 대부분 단선이고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 남한의 수송수단별 물류 분담률 > < 남한 물류산업의 국민경제적 비중 >



자료: 국토교통부(2012). 주: 여객은 인·km, 화물은 무게(톤) 기준. 자료: 통계청. 주: 실질 GDP 대비 운수 및 보관업 비중.

- (전망) 고속철도가 한반도 전역과 동북아 지역을 1일 생활권으로 묶고 유럽 철도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되면, 한반도는 유라시아 동쪽 관문을 지키는 물류중심국가로 부상
 - 부산~서울~신의주를 잇는 고속철도와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가 연결되면 한반도뿐만 중국 동북지방까지 1일 생활권으로 연결
 -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5시간대 연결로 한반도 1일 생활권 실현되고, 서울에서 금강산까지는 1시간대 이동이 가능
 - 중국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북경~선양~단둥 고속철도와 연결되면 한반도를 넘어 중국의 동북지방을 아우르는 1일 생활권이 실현
 - 장기적으로 유럽철도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한반도종단철도(TKR)까지 이어지는 '실크로드익스프레스(SRX)'가 완성
 - 동해선은 TSR과 연결되고 경의선은 TCR과 연결되어 유라시아 차원의 통합적 물류망 구축 및 경제통합을 촉진
 - 표준궤(한반도)와 광궤(대륙)를 연결하는 궤간변경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어 상용화 수준에 도달
 - 물류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10%에 육박하며 국가 중추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물류산업의 생산액은 2015년 61조원에서 2050년 677조원으로 증가하고, GDP 대비 비중은 2015년 4.0%에서 2050년 9.2%까지 상승
 - 특히, 지금까지 전혀 성장하지 못했던 육상물류가 빠르게 성장하여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50년 5.5%에 달할 전망

< 통일 이후 물류 산업 전망 >

(단위: 조 원, %)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전체 물류산업 생산액	61	89	175	344	677
(GDP 대비 비중)	(4.0%)	(4.8%)	(5.6%)	(6.9%)	(9.2%)
육상물류 생산액	24	36	87	206	474
(GDP 대비 비중)	(1.6%)	(1.9%)	(2.8%)	(4.2%)	(5.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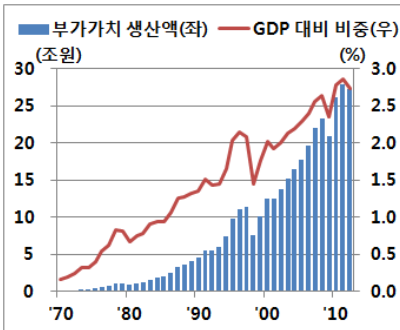
⑥ 기계: 전후방 연쇄효과의 중심

○ (현황) 남한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은 국내 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

- 남한의 기계산업은 1990년대까지 10%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였으나 최근 국내 설비투자 위축 및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하락
 - 기계산업은 모든 산업의 생산설비를 제공하는 기간산업으로 산업 간 전후방 연쇄효과가 크고 장기간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기술집약적 산업임
 - 광의의 기계산업은 일반기계, 전기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 금속제품을 포괄하며, 협의의 기계산업은 일반기계산업(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의미
 - 국내 일반기계 수요는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전자, 일반기계 산업자재 등 4대 산업이 85% 이상을 차지
 - 남한의 일반기계산업은 1970년대에 연평균 24.7% 성장하였으며, 1980년대 17.6%, 1990년대 10.6%, 2000년대 7.7%로 성장률이 하락

- 북한은 기계공업을 중공업의 핵심으로 중점 육성해왔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공작기계 산업은 타 부문에 비해 비교적 발전된 산업으로 평가
 - 기계공업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수공업과 직결되는 산업으로 북한은 무기, 대형기계류 및 설비생산 부문에서 자립적 기술기반을 보유
 - 2000년대부터 CNC 공작기계에 의한 생산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 중

< 남한의 일반기계 산업 성장 추이 >



자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북한의 주요 공작기계공장 현황 >

공장명	연간 생산능력(대)
희천공작기계종합공장	15,000
구성공작기계공장	10,000
만경대공작기계공장	3,000
청진공작기계공장	2,000
평양공작기계공장	1,000

자료: 한국정책금융공사.

○ (전망) 통일 이후 전 산업에서 생산설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계산업은 고성장기에 재진입할 것으로 전망

- (내수) 국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확대로 기계산업 생산 증가율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건설기계) 계획개발 초기 단계부터 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요가 빠르게 증가
- (공작기계) 제조업 설비투자자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공작기계산업은 산업 전반의 경기 상승에 따라 수요가 확대
- (수송기계 중간수요) 자동차, 조선 등 수송기계산업의 생산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동 부문의 중간수요가 증가

- (수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한편, 가격경쟁력 우위 요소가 결합됨에 따라 수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남한의 기계산업 수출은 범용 기계류 중심에서 NC선반 및 머시닝센터 등 고기능 기계류 위주로 전환되는 추세 지속
- 최근 선진국과의 가격경쟁력 격차가 좁혀져 왔으나, 통일 이후 노동력, 원자재 등 원가절감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이에 따라 일반기계 산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2050년 287조원, GDP 대비 비중은 3.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반기계 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8% 성장하고 이후 2050년까지 성장률은 단계적으로 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통일 이후 일반기계 산업의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부가가치 생산액	34	50	98	176	287
GDP 대비 비중	2.2	2.7	3.2	3.6	3.9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주: 2010년 가격 기준 실질 생산액.

⑦ 소재: 가치사슬 통합으로 고부가가치화

○ (현황) 남한은 세계 6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북한은 국내 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금속공업 및 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

- 남한의 소재 산업은 경제 발전과 함께 꾸준히 성장해왔으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낮으며 최근 중국의 빠른 추격으로 위협에 직면

- 소재 산업은 제조업의 뿌리가 되는 산업이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균화됨에 따라 첨단 소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남한의 소재 수출액은 2000년 세계 28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에서 2011년 931억 달러, 세계 6위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00년 3.9%에서 2011년 4.2%로 약 0.3%p 상승
- 한편, 중국의 소재 수출액은 2000년 274억 달러 규모에서 연평균 20.7%로 급격히 증가해 2011년 2,176억 달러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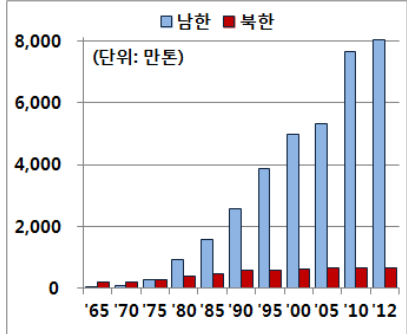
- 북한은 철광석, 비철금속, 비금속 등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금속공업 및 석탄화학공업 생산체계를 구축해왔음

- 북한에는 철광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고, 중석, 니켈, 코발트, 크롬 등의 합금용 광물과 마그네사이트, 규소 등의 광물자원 매장량도 풍부
- 그러나 전반적인 경제침체로 생산능력의 성장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

< 남한의 소재 수출액 및 점유율 변화 >

2000년	2011년
세계수출시장 7,317억	세계수출시장 2조2,265억
1위 미국 958억(13.1%)	1위 독일 2,340억(10.5%)
2위 독일 852억(11.6%)	2위 중국 2,176억(9.8%)
3위 일본 590억(8.1%)	3위 미국 2,160억(9.7%)
4위 프랑스 417억(5.7%)	4위 일본 1,444억(6.5%)
5위 벨기에 390억(5.3%)	5위 벨기에 1,159억(5.2%)
⋮	⋮
8위 한국 287억(3.9%)	6위 한국 931억(4.2%)
9위 중국 274억(3.7%)	⋮

< 남북 철강공업 생산능력 >



자료: UNcomtrade 자료를 이용 현대경제연구원자료: (남)한국철강협회 「철강통계연보」, 원 재구성. (북)통계청.

주: 괄호안은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을 의미.

○ (전망) 전후방 가치사슬 통합으로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

- 가격경쟁력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소재 품목이 확대되고 수익성이 향상됨에 따라 소재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증가

- 현재 남한의 소재 산업은 기술경쟁력 중심의 독일·일본과 달리 가격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가격경쟁력 우위 유형의 소재 수출은 2011년 기준 전체 소재 수출액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일 이후에는 가격경쟁력이 더욱 향상될 전망

- 희유금속, 희토류 등을 원료로 하는 고기술,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기술경쟁력도 높은 수준에 도달

- 중국이 급속도로 세계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재 산업은 국제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 국내 소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빠르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통일 이후에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

- 통일 후 우리나라는 2050년 세계 4위의 소재 수출 대국으로 도약할 전망

- 세계 소재 수출시장 및 국내 소재 생산액은 2020년까지 10% 성장률을 유지하다가 2050년까지 단계적으로 성장률이 7%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가정
- 이 경우 통일 한국의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은 일본을 넘어서며 중국, 미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권 진입이 가능

< 통일 이후 소재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351	566	1,340	2,892	5,690
내 수	215	346	770	1,415	1,859
수 출	136	220	569	1,477	3,83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⑧ 환경/사이오: 그린 한반도 조성

○ (현황) 남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낮지만 친환경 바이오 산업이 부상하고 있으며, 북한은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으나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존재

- 남한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농림어업의 비중이 28%에 불과하나 바이오(BT) 산업은 고성장을 지속

- 남한의 식량 자급률은 2012년 23.6%까지 하락하였으며, 쌀을 제외한 기타 식량작물은 자급률이 5% 미만으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최근에는 FTA 등의 영향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쌀 자급률은 2005년 102.0%에서 2012년 86.1%까지 하락4)
- 한편, 남한의 바이오 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6.4조원으로 추정되며 5년간 연평균 15.0%의 고성장을 지속

- 북한은 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농업 생산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기농법을 적극 장려

- 북한 경제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3.4%에 달하며, 농가인구는 약 857만명으로 추정
- 최근 북한은 자연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유기농법을 통해 살충제와 화학비료 등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

< 남북한 농림수산업 현황 비교 >

	남한	북한
농림어업 비중 (%)	2.8% (2012년)	23.4% (2012년)
농가인구 (만명)	291.2 (2012년)	857.3 (2008년)
인구대비 비중(%)	5.8 (2012년)	36.8 (2008년)
식량작물 재배면적(천ha)	1,052 (2012년)	1,614 (2009년)
국토대비 비중(%)	10.5 (2012년)	13.4 (2009년)
원목생산량(천 ^{m³})	4,506 (2012년)	7,547 (2012년)
수산물 어획량 (천MT)	3,183 (2012년)	737 (2012년)

자료: 한국은행, 농촌진흥청, 통계청.

주: 농림어업 비중은 명목 GDP 대비 비중(북) 및 명목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남)을 의미.

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한국바이오산업협회 등의 통계를 기초로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 (전망) 청정개발체제(CDM)를 활용한 녹색 한반도 조성,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체계 구축으로 생태, 환경 및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통일 이후 한반도의 대기 및 수질 개선, 산림복원, 비무장지대(DMZ) 활용 협력 등 한반도 생태공동체 구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

- 산림복원, 수력발전 등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를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비무장지대 일대의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을 진행
-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청정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녹색 한반도 생태공동체를 조성

- 상호보완적 농림어업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환경 및 식량안보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북한 지역의 농업생산력 향상, 친환경 유기농법 확대, 전국적 차원의 쌀 수급구조 재편을 통해 식량 자급률 향상 및 환경 보호를 동시에 도모

- 남북한 농림어업과 생명공학 기술의 상호보완적 융합으로 고부가가치 식품, 생명자원, 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 산업이 빠르게 발전

- 농업 관련 '그린 바이오', 의약 관련 '레드 바이오', 산업 관련 '화이트 바이오'는 바이오 산업의 3대 축을 형성
- 특히, 농업유전자원 확보, 우수품종 육성, 소재식물 대량생산, 기능성 신물질 추출 등을 위해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되는 그린 바이오 부문이 유망
- 이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의 생산 규모는 2015년 약 10조원 수준에서 2050년에는 100조원 이상으로 열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통일 이후 국내 바이오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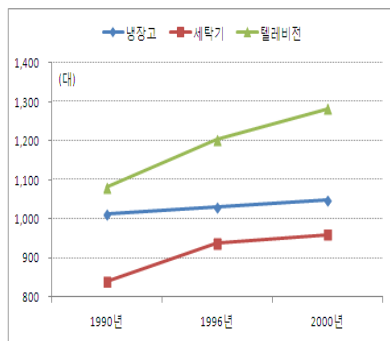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액	9.9	14.8	30.8	60.0	109.4
내 수	5.6	8.4	17.4	33.9	61.8
수 출	4.3	6.4	13.3	26.1	47.6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⑨ 가전: 생활수준 향상 주도

- (현황) 남한의 가전제품은 생활 및 소비수준 향상에 따라 고급화가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본 생활을 위한 가전제품 보급에 주력
- (남한) 1980~1990년대 가전제품 보유가 급격히 증가하며 가전제품 보급률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해외 생산이 확대됨
 -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의 보유가 1980~1990년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었고 최근에는 가전제품의 고급화와 대형화로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정되어 있는 내수 시장으로 인해서 가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또한 해외 공장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 에너지, 원자재의 부족으로 가전제품 생산활동은 미미한 수준이며 중국산 제품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TV, 냉장고, 세탁기 등은 2000대 후반 보급률이 크게 높아졌으며 중국산 제품이 대부분 시장을 장악
 - 음향 및 영상기기 산업 역시 낙후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중국산 VCR, 디지털카메라 등의 유통이 확대

< 남한의 주요 가전제품 보급 추이 >



자료: 가구소비실태조사, 통계청.
주: 1,000가구(2인 이상)당 가구내구제 보유수량.

< 북한의 주요 가전제품 생산 공장 >

	공장명	주요 생산 제품
평양	평양소형전동기공장	세탁기, 냉장고용 전동기
	새날전기공장	전동기, 선풍기, 분쇄기
함경남도	함흥전기기구공장	전기개폐기, 전기다리미, 전열기구, 등
함경북도	주을전기공장	전기다리미, 차단기, 배전함 등

자료: 정책금융공사(2010) '북한의 산업'.

- (전망)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로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고 남북한 지역의 차별화된 생산 분업으로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
- 통일 이후 남북한 산업 발전은 효율적인 생산 구조의 재배치로 인해 생산성 향상이 크게 이루어지고 내수 시장 확대에 의해 가전제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북한 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
 - 북한은 보급형 위주의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고 남한은 고급품 위주의 제품 생산으로 차별화된 생산 분업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남한의 기술력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북한 주민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가전제품 생산이 급증할 전망
- 통일이후 북한의 가전제품 보급률이 급등하면서 보급형 가전제품 생산이 확대되고 점차 고급화 제품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 통합 후에 북한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또한 남·북한 생산 분업 시스템 확립으로 생산 증가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초기 계획개발 단계(2015~ 2020)의 가전제품 생산은 18% 수준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점차 하향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

< 통일 한국 가전제품 생산 실질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

		증가율 (%)		
		계획개발 단계 (2015~ 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통일 한국	통일 한국	7.3	5.6	4.3
	남한	5.2	4.7	3.2
	북한	18.0	11.5	5.5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각 단계별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

⑩ 자동차: 유효수요 지속 성장

○ (현황) 남한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였으며, 북한은 최근 남북합작기업인 평화자동차를 통해 완성차 조립, 생산 기술을 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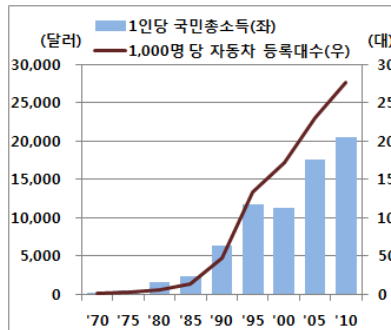
- 자동차 산업은 생산 유발 및 기술 파급 효과가 큰 산업으로 1970년대 이후 남한 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주역

- 자동차는 수많은 자재와 부품을 사용함에 따라 중간투입률이 높고 철강, 기계, 전자, 소재 등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산업
- 1962년 '자동차공업 5개년계획'이 수립되면서 산업의 기반 형성
-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 보급률도 꾸준히 상승하여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300대를 돌파
- 2013년 자동차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권이며,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고용의 10.6%, 제조업 부가가치의 10.3%, 전산업 수출액의 10.2%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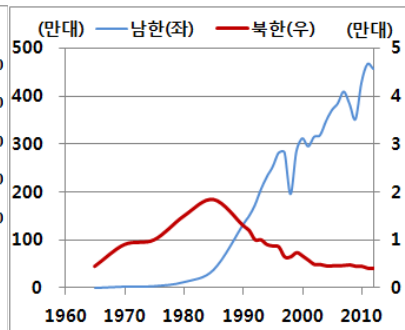
- 북한은 산업용 화물차 생산에 치중해왔으나 최근 승용차, SUV, 승합차 등을 조립,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음

- 북한의 자동차 생산량은 1965년 4,400대에서 1985년 18,500대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하락세로 전환되어 2013년 4,000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
- 2008년 이후 평화자동차에서는 휘파람(소형 승용차), 준마(대형 승용차), 뽀꾸기(SUV), 삼천리(승합차) 등의 모델을 조립, 생산 중

< 남한의 자동차 보급 추이 >



< 남북한 자동차 생산량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국토교통부, 주: 국민총소득은 명목 기준.

자료: (남)한국자동차산업협회, (북)통계청.

○ (전망) 통일 후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약 1,000만대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2,500만 명의 내수시장 및 1억 1,000만 명의 동북3성 수출시장을 타겟으로 생산 거점을 구축

- 1인당 소득 수준 향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고 내수시장 확대에 의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됨에 따라 자동차 구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동북 3성은 지속적인 고속도로 건설 투자로 전체 물류량 중 고속도로 비중이 80% 이상까지 증대되어 향후 자동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전망

- 남한의 내수시장의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하였으나 북한 내수시장 및 인접 수출시장은 지속적인 성장기 기대

- 남한 내 국산차 판매량은 연평균 1% 증가, 북한 내 국산차 판매량은 1975년부터 2010년까지 35년 간 남한의 성장경로를 따른다고 가정(인구 차이 고려)
- 수출은 중국의 성장률 및 국산차 시장점유율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연평균 3% 성장하고, 2030년부터 2050년까지는 연평균 2% 성장한다고 가정

- 통일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500만대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거의 1,0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

- 국내 자동차 생산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2020년대 2.9%, 2030년대 1.8%, 2040년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자동차 산업 성장 전망 >

(단위: 만 대)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생 산	470	532	709	832	974	
내 수	150	161	211	225	233	
	남한	148	156	172	172	172
	북한	2	5	39	53	61
수 출	320	371	499	608	741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① 항공우주: 군수기술의 민간 활용 확대

○ (현황) 남한은 위성활용, 지상장비, 위성체 분야를 중심으로 항공우주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북한은 군수산업 및 발사체 기술이 발전

- 남한은 우주산업을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3년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우주기술 산업화 전략'을 수립, 추진 중
 - 우주 분야에 참여한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를 모두 합산한 우주 분야 활동금액은 1조 4,408억원 규모
 -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2001년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013년에는 3,475억원으로 세계 20위 수준⁵⁾
 - 2013년 나로호 3차 발사 성공, 다목적실용위성 5호 및 과학기술위성 3호 발사 성공에 힘입어 우주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고조
- 북한은 군수산업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미사일 및 우주발사체 기술의 자체 개발을 추진
 - 2012년 12월에 발사된 우주발사체 '은하3호'는 인공위성 '광명성3호'를 궤도에 올려놓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짐

< 남한의 우주산업 규모 >

구분	금액(억원)	비중(%)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1,984
	발사체	787
	지상장비	2,076
우주활용	위성활용	9,376
	과학연구	185
합계	14,408	100.0

< 북한의 우주발사체 개발 현황 >

명칭	발사일시	중량(kg)
백두산1호 (대포동1호)	1998년 8월	33,406
은하2호 (대포동2호)	2009년 4월	79,189
은하3호(1차)	2012년 4월	90,000
은하3호(2차)	2012년 12월	90,000

자료: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 2012년 기준.

자료: 언론 보도 종합.

5) 미래창조과학부, '2013년도 우주개발 시행계획'(추경 예산 반영금액).

○ (전망) 군비경쟁의 해소로 국방예산이 절감되고 군수기술의 민간 사용이 촉진됨에 따라 항공우주 산업이 빠르게 발전

- 항공우주 산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되는 분야로 국가적 차원에서 콘트론타워를 구축하여 연구개발 및 실용화 사업을 주도
 - 세계 우주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통일 한국은 2020년 달탐사선 및 달궤도선 발사를 통해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예상
- 군수산업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spill-over)되면서 항공우주 산업의 역량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
 - 비생산적인 분야에 소모되었던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물이 민간 부문에서 상용화로 이어지면서 산업의 고속 성장을 추동
- 남한의 위성제작 및 우주활용 기술과 북한의 발사체 기술이 시너지를 창출하며 통일 한국의 우주산업 규모는 2050년 약 24조원 규모로 성장 전망
 - 우주기기 제작 부문의 활동금액은 2015년 0.6조원에서 2050년 9.1조원으로 15배 이상 증가할 전망⁶⁾
 - 우주 활용 부문의 활동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원에서 14.9조원으로 11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통일 이후 우주산업 성장 전망 >

(단위: 조 원)

구 분	2015	2020	2030	2040	2050
우주기기 제작 (위성체, 발사체, 지상장비)	0.6	0.9	2.1	4.6	9.1
우주 활용 (위성활용, 과학연구)	1.3	2.0	4.2	8.3	14.9
합 계	1.8	2.9	6.4	12.9	24.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전망.

주: 산업체 매출, 연구기관 예산, 대학 연구비 등 합산.

6) 우주 분야에 참여하는 산업체의 매출, 연구기관의 예산, 대학의 연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

⑫ 관광: 외국인 관광객 2억명 시대 도래

○ (현황) 최근 남북한 전체 관광객수는 1,140명, 관광산업 240억 달러로 추정

- 최근 북한의 외래관광객은 한국의 2~3% 수준인 20만명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2년 남북한을 합친 외래 관광객은 1,140명 정도로 추정
 - 북한의 적극적인 관광 진흥책 실시에다가 중국의 對북한 관광객이 최근 급증 (2009년 9.6만명 → 2012년 23.7만명)하면서 북한의 외래 관광객수는 2012년에 26만명~30만명에 추정되며
 - 남한과 합쳤을 경우, 남북한 외래 관광객은 2012년 1,140만명에 달함
- 남북한을 합친 관광산업 규모는 약 240억 달러로 추정되어 세계 17위 수준
 - WTTC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의 관광산업의 GDP기여도(직접 효과 기준) 결과를 기초로 산출⁸⁾
 - 북한의 관광산업 규모는 GDP기여도를 기여도하위국가의 평균수준인 1.5%로 적용해 보면 3억~4억 달러로 추정
 - 여기에 남한의 236억달러(2012년)와 더하면 남북한을 합친 관광산업 규모는 약 240억 달러로 세계 17위 수준

<남북한의 외래 관광객 (추정)>

(단위: 만 명)

연도	남한 (C)	북한 (D)	합계 (C+D)	D/C	중국의 대북한 관광객
'09	782	11~12	793~794	2%	9.6
'10	880	15~16	894~896	2%	13.1
'11	980	22~24	1001~1004	2%	19.4
'12	1,114	26~30	1140~1143	3%	23.7

<남북한 관광산업 순위 (추정)>

(단위: 억 달러)

구분	관광산업	순위
미 국	4,330	1
중 국	2,200	2
일 본	1,280	3
프랑스	1,010	4
영 국	860	5
남북한 합계	240	17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중국 國家旅游局, UNWTO(국제연합 세계관광기구), WTTC(세계여행 산업회의).

주: 1)중국 國家旅游局에서는 입국목적 구분없이 전부 관광객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유의
2)북한 외래 관광객은 전체 관광객중 중국인 관광객을 80%~90%로 가정하고 추정.

- ①2009년 중국과 북한 양국간에 관광협력의 양해각서가 체결되면서 중국의 對북한 관광이 활성화, ②『중국 관광업 통계 공보』(중국 國家旅游局, 각년도)에서는 전부 관광객으로 계산.
-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Economic Impact Research. 각년도.

○ (전망)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관광시장 확대로 인근 국가와 동남아, 구주 관광객까지도 급격히 확대되어, 2050년 외래관광객 수는 최대 2억명, 관광산업 규모는 최대 2,500억달러에 달할 전망

- 한반도~중국 동북 3성~러시아 연해주 간의 극동 지역 관광이 활성화됨에 따라 일본을 비롯, 동남아 국가와 유럽 및 미주 국가의 관광객이 증대
 - 단기적으로 북한 지역의 자유로운 관광, 사업 목적의 관광 입국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한 관광 시설 및 인프라의 개선 및 확충이 진행
 -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륙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한편, 자연 관광 중심에서 레저 목적의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관광산업이 본격 성장
- (외래 관광객 수) 통일한국의 외래 관광객 수는 2020년 최대 3천만 명에 달하고, 지속적인 성장 단계를 거치면서 2050년에는 2억 명으로 확대
 - UNWTO는 '10~30년 평균 관광 증가율을 동북아시아 4.9%, 전세계 3.3%로 전망⁹⁾
- (관광산업 규모) 통일한국의 관광산업 규모는 2020년 최대 450억 달러에 달하고, 이후 관광 인프라 개선 및 관광자원 개발에 따른 관광객 수요 확대로 2050년에는 2,500억 달러로 성장
 - WTTC는 2024년 관광산업의 GDP기여도를 전세계 3.1%, 남한 2.1%로 전망¹⁰⁾

< 통일 후 한반도 관광객 수 및 관광산업 규모 추정 >

구분	계획개발 단계 (2015~2020)	고속성장 단계 (2021~2030)	안정성장 단계 (2031~2050)
외래 관광객 수 (만 명)	2,500~3,000	7,000~7,700	18,000~20,000
관광산업 규모 (억 달러)	350~450	800~900	1,600~2,500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각 단계별 최종 년도의 추정치를 의미.

9) 자료: UNWTO, UNWTO Tourism Highlights 2013 Edition, 2013.10.

10) 자료: WTTC, WTTC Travel & Tourism Economic Impact Research 2014. 2014.

4. 시사점

- 통일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남북 사이의 공감대 형성 및 신뢰 구축, 발전전략 및 실행계획 공유, 정치·경제적 추진력 확보 등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
- 남과 북의 민·관 모두가 통일과 번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지한 대화 노력을 지속
 - 민간 교류협력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남북 간 소득격차 축소, 당국자 간 신뢰 회복, 긴장 완화 및 화해 무드 전환의 계기를 마련
 -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국제화, 5.24조치 해제 등을 통해 기존 경제협력 사업의 모멘텀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
- 통일 이후 성장이 주목되는 12대 산업에 대한 발전 로드맵 및 시나리오별 추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통일비용을 감소시키고 편익을 극대화
 - 북한의 풍부한 인적 자원·지하자원과 한국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여 전 산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
 - 12대 중점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통일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추진력을 확보
 -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 공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
 - 남북협력기금 확대,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등 통일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경제적 추진력을 강화

장우석 연구위원(2072-6237, jangws@hri.co.kr)
 예상한 연구위원(2072-6232, syeahk@hri.co.kr)
 이해정 연구위원(2072-6226, hjlee@hri.co.kr)
 김민정 연구위원(2072-6212, kimmj@hri.co.kr)
 이장균 수석연구위원(2072-6231, johnlee@hri.co.kr)

주요 국내의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1.1	2.5	4.1	2.6	2.8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2
일본	2.0	3.7	-1.7	-3.1	-0.2	1.7	4.8	3.9	1.1	1.0	1.4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5

주 1) 2013년,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4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1일	5월 8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61	2.62	0.01%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2.63	101.86	-0.77¥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3812	1.3912	0.0100\$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559	16,551	-8p
국내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4,485	14,164	-321p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87	2.85	-0.02%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33.2	1,022.6	-10.6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1,961.8	1,950.6	-11.2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5월 1일	5월 8일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9.43	100.19	0.76\$
	Dubai	107.99	100.38	107.88	104.49	104.09	-0.40\$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307.68	306.84	-0.84\$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2014(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7	2.5	2.1	2.3	2.4	3.5	3.0	3.8
	민간소비 (%)	2.9	1.2	2.6	1.9	1.9	2.1	2.0	2.7
	건설투자 (%)	-3.4	-3.2	-4.6	-3.9	6.4	7.0	6.7	2.5
	설비투자 (%)	4.7	4.3	-4.1	0.1	-8.3	6.2	-1.5	6.7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187	109	400	508	313	486	799	490
	무역수지 (억 달러)	308	109	174	283	200	241	440	370
	수출 (억 달러)	5,552	2,750	2,729	5,479	2,765	2,832	5,596	6,067
	(증가율, %)	19.0	0.5	-3.1	-1.3	0.5	3.8	2.1	8.4
	수입 (억 달러)	5,244	2,641	2,555	5,196	2,565	2,591	5,156	5,697
	(증가율, %)	23.3	2.3	-4.0	-0.9	-2.9	1.4	-0.8	10.5
소비자물가 (평균, %)	4.0	2.7	1.7	2.2	1.4	1.2	1.3	2.4	
실업률 (평균, %)	3.4	3.5	2.9	3.2	3.4	2.9	3.1	3.1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8	1,142	1,112	1,127	1,104	1,086	1,095	1,07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